

# 이재명 대표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3기가 시작됐다. 1기는 대선 후보 선출로 출발해 대장동 비리와 대선 패배로 막을 내렸다. 2기는 당 장악과 총선 승리라는 반전 드라마였다. 3기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 중도화 전략을 통해 대선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조유의 85% 득표율로 독주 체제를 완성했으니 기대할 만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 대표 주변에선 걱정이 많다. 두 달 뒤 이 대표를 흔들 대풍 3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먼저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10월 중 예정돼 있다. 두 사건 모두 단순·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둘 중 하나라도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선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10월 중순엔 전남 곡성·영광 군수 보궐선거가 열린다. 조국혁신당이 두 곳 모두 후보를 낸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만만치 않다. 조국당은 총선 호남 비례대표 득표율 1위였다. 곡성·영광도 1%p 안팎 차이였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과 이 대표 득표율은 낮았다. 보선에서 지면 조국

대표에게 호남 주도권을 뺏긴다.

11월엔 '친문 적자(嫡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돌아온다. 그는 8·15 복권으로 대선 길이 열렸다.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이 대표와 격차가 크다. 대선 출마 의지도 명확치 않다. 친문 진영은 총선 때 '공천 학살'로 지리멸렬 상태다. 아직 미풍 수준이지만 다른 변수와 맞물리면 '이재명 대체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세 난관을 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는 생존 능력 최강자 임기응변의 달인이다. 어떤

10월 선고·호남 보선·김경수 복귀 독주 흔들 변수들 막기 총력전 개발 패권에 '막사니즘' 변질 땐에선 무적이어서 대선 어려울 것

위기가 와도 살아남았다. 핵심 측근은 "법원과 대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법은 무조건 벌금 100만원 이하로 막아야 한다고 한다.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선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10월 중순엔 전남 곡성·영광 군수 보궐선거가 열린다. 조국혁신당이 두 곳 모두 후보를 낸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만만치 않다. 조국당은 총선 호남 비례대표 득표율 1위였다. 곡성·영광도 1%p 안팎 차이였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과 이 대표 득표율은 낮았다. 보선에서 지면 조국

이 대표는 대선·총선에서 친문과 비명의 경쟁자들을 모두 정리했다. 김 전 지사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다르다. 개발과 친명을 앞세워 싸울 자

르려 할 것이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탄핵 연대'와 '선거 연대'로 감싸는 방법도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 대표는 야권의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대표 유일 체제를 유지하려면 흥위병 역할을 해온 개발과 진영 패권이 더 막강해질 것이다. 다른 목소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비주류는 이탈하고 민주당 외연은 쪼그라들 것이다.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안과 탄핵 집착증은 만성적 정쟁과 국회 폭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대표가 집권을 위해 내세운 실용적 '막사니즘'도 생존을 위해 뒤흔지 하는 '막사니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개혁과 민생 정책 추진 약속은 깨지고 유능한 경제 정당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난 2년이 그랬다.

이 대표는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 비리가 드러나자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 함께 일한 간부들 "모르는 사람"이라 하고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었다. 이 대표가 정말 두려워할 일은 유능함과 국민 신뢰를 함께 잃는 것이다.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넘기고 경쟁자를 정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선은 무적이겠지만 본선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개발의 지도자, 생존형 정치인에 머물러선 안 된다.

김준의 맛과 섬 [204]

## 신안 증도 농게간장게장



고려조와 조선조에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던 많은 조운선이 안흥항을 지나다 침몰했다. 그곳은 조운로 중 협항기로 소문난 배길이다. 오죽했으면 난행량이라 불렀으며, 무탈하게 지날 수 있도록 지명마저 안행량이라 바꿨을까. 800여년 후 발굴된 침몰선에서 '죽산현'이라 적힌 '죽찰'이 발견되었다. 죽산현은 오늘날 전남 지역이며, 죽찰은 수화물 인식표다. 그 표에는 '죽산현에서 서울에 있는 교유 윤방준 님에 올림 게 것갈 1항이라 4말을 넣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침몰선에서 농게 집게발과 게딱지가 담긴 용기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간장게장 흔적이다. 지금은 해남군 마산면에 갯벌이 없다. 하지만 한때 농게가 서식하기 좋은 우리나라 최고 펄 갯벌 지역이었다. 지

금도 신안, 무안, 영광에서 여름과 가을이면 즐겨 농게 간장게장을 즐긴다. 농게는 칠게와 달리 단단한 껍데기와 큰 집게발로 이루어져 게장을 담으면 물러지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주민들은 농게장이라 부른다.

농게는 달랑게과에 속하는 게로, 붉은 발을 가진 '농게'와 흰 발을 가진 '흰발농게'가 있다. 농게는 펄 갯벌에서 서식하고, 흰발농게는 모래 갯벌에서 서식한다. 모두 암컷은 체형이 수컷보다 작고, 수컷은 한쪽 집게발이 크다. 큰 집게발을 높이 쳐들어 암컷을 유혹하고, 다른 수컷을 위협하기도 한다. 갯벌에 구불구불 서식굴을 마련하는 칠게와 달리 수직으로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어민들이 맨손으로 잡기 좋다. 또 물기가 있어야 하는 칠게와 달리 바닷물이 잘 들지 않는 단단한 조건대 상부 갯벌

을 좋아한다. 염생식물이 자라는 육지와 가까운 갯벌에서 서식굴을 마련하기도 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스스로 흠을 퍼서 구멍을 막는 지혜로운 생물이다. 농게장을 맛있게 먹었던 곳은 화도 밥집이다.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작은 섬마을이다. 섬에서 만난 주민이 갯벌에 손을 깊게 집어넣어 잡은 농게를 '꽃게'라며 보여줬다. 농게의 붉은색 게딱지와 다리를 생각하면 주민들이 부르는 '꽃게'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농게 중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붉은발농게다. 흰발농게는 멸종 위기가 있어야 하는 칠게와 달리 바닷물이 잘 들지 않는 단단한 조건대 상부 갯벌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지웠다. 2020년 작성된 기존 정강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서도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은 물론 비핵화란 표현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북한 비핵화가 동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핵 군축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핵보유국이 돼 한국 위에 올라서겠다는 북의 오랜 집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적 위기라고 봐야 한다.

작년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TG)을 가동

### 난공사 울릉 공항 2년 지연, 비슷한 공법 가덕도 공항은 괜찮나

울릉공항 개항이 공사 지연으로 2026년 상반기 개항이 2년 늦춰졌다. 공사 진척이 예상보다 더딘 것이다. 울릉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 테스트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근 신을 깎아 바다를 메워 육해상에 걸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짓는 방식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공항의 개항 일정이 2년이나 늦춰졌다면 가덕도 신공항 일정도 문제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애초 2035년 개항을 추진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전 과정에서 2029년 12월로 일정을 무려 5년 이상 앞당겼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공항 전체를 해상에서 지으려던 계획을 수정, 산을 깎아 육해상에 걸쳐 짓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동 침하 가능성 탓에 계획 검토 단계에서 배제했던 방식을 되살려낸 것이다. 무리한 일정과 난공사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커져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3차 입찰 공고를 내면서 공사 기간을 7년으로 1년 연장했지만 19일 부지 조성 공사 3차 입찰마저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했고, 지난달엔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핵 작전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울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하는 대응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핵우산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2년 전 합참은 북한이 2027년쯤 핵무기 2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 판단을 내렸다. 지금은 그 시기가 더 앞당겨졌는지 모른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보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더 많은 핵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북·러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사실상의 동맹 조약에도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민주·공화당이 모두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지웠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를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으로 활주로 길이가 1200m다. 가덕도 신공항은 3500m 활주로가 2개다. 공사비는 울릉공항의 20배다. 공사 현장의 평균 수심은 각각 울릉이 23미터, 가덕도 20미터로 큰 차이가 없다. 소형 울릉공항을 짓는데 공사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는데, 전체 면적이 15배가 넘는 대형 공항을 같은 기간에 짓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인천공항의 경우 1단계 건설에만 9년이 걸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해 가덕도 신공항을 무리해 조기 완공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분 개항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한쪽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바로 옆에서 도목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맡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조기 완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지반 침하 같은 문제라도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다.

### 우크라이나 '헬기 무덤'인데 아파치 헬기에 4조7000억 써야 했다

군이 4조7000억원어치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를 미국에서 구입한다. 아파치는 이른바 여지 없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다. 우리 군은 2017년 아파치 36대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번에 같은 대수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 공격 헬기인 Mi-28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공격 헬기가 실전에서 드론에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200억원이 넘는 러시아군 Ka-52 공격 헬기 등도 1000만원 안팎인 휴대용 미사일에 걸려 줄줄이 격추됐다. 지난 2월 러시아가 공격 헬기의 40%를 잃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헬기 무덤'이 됐다. 미국 아파치는 러시아에 헬기보다 안전 측면에서 낫다고 하지만 지대공 방어망에 걸리면 격추를 피하기 어렵다. 원래 공격 헬기는 적의 전차나 진지를 파괴해 아군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근접 지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드론과 휴대용 미사일의 발달로 기존 운용 교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울 초미 육군은 이미 20억달러를 투자한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헬기의) 공중 정찰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우고 있다"고 했다. "무인 시스템이 더 멀리 도달하고 더 저렴해졌다"고도 했다. 미군은 헬기 대신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시스템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부터 유인 헬기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 했다. 그런데 전쟁 양상이 전혀 없이 흐르자 헬기 계약을 취소하고 무인 공격기를 증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드론은 신뢰성 있는 타격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지형이 다르고 공격 헬기의 유용성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추가 도입을 결정할 것을 바꿀 수 없었던 탓일 것이다. 실제 전쟁보다 더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 시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군이 타성이 아니라 혁신적 사고로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했으면 한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8월 20일 게재되었습니다.

## 76년 되도록, 건국대통령 기념관조차 없었다... 이게 나라였다

(대한민국)은 (임정)법통 계승해 1948년 건국 | 한반도 최초 자유민주공화국(민국) 탄생 의미 기려야 | 이승만 시대정신 살아 숨 쉬는 기념관 만들자



8.15 해방공간에서 공산당은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비전]에 반대했다. 그들은 [노(勞)농(農)계급독재]를 지향했다. 그러나 걸으면 [민주·민족 전선]을 내세웠다. [중간파]를 끌어들이려.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해가다

1948년, 이승만 박사의 자유 진영은 5.10 총선, 7.17 헌법 반포, 8.15 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해갔다.

[공산당 + 중간파]는 이를 [단독정부 수립]이라 매도했다. 북한엔 [인민위원회]란 [단독정부]가 먼저 들어있었는데도.

그로부터 반세기.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당대에 이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국가 청사진, 농지개혁, 6.25 남침 격퇴, 원자력 연구 지원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깔았다.

■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폄하하는 세력, 여전

그러나 기막힌 현실이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1948년의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시각이 끈질기게 준동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 모독한다.

공산당이 그러는 것이야 당연하다. 문제는 일부 [비(非)공산 계열]도 그러는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19년]이라고 한다. [1948년 건국 주장은 임정을 폄하하려는 음모]라고 한다.

■ 3.1운동-임정 법통 계승 <대한민국>

그러나 대한민국(인) 누가 위대한 3.1 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했나? 공산당 외엔 아무도 그걸 부정할 적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임정(臨政) 법통]을 확실히 상기했다.

[법통 계승]이란 다만 [정신의 계승]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 계승이 아니라고, 자유 진영 헌법학계는 풀이한다.

■ <대한민국 76년사>를 자랑하라

그러나 법률 논쟁을 떠나, [대한민국 76년사]를 열정적으로 깨닫는 자유인들은, 좀 보수든 좀 진보든, [임정 법통]을 계승한 [1948년의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다. 얼마나 갈구했던 [자유·시장·개방·법치·공정]의 조국이었나!

자유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뒤늦게나마 용산 벌에 세우며 다시 한번 고백한다. [1948년의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천명한 [시대정신과 국가 정체성]은:

- ※ [근대 문명]이다.
- ※ [철학적 자유주의 + 계몽사상 + 민주공화국 + 자유시장 + 자유 통일 + 중화주의 탈파·서방 동맹]이다.
- ※ [민족·민중 평등을 가장한 [전체주의 동물농장]에 치열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축하! (대한민국) 성공사 만세!

■ 류근일 뉴데일리는설교문 / 전 조선일보 주필

NO. 10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